

제주신화월드 “갯생살기” 풀사이드 요가 클래스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매주 토요일 ‘갯생살기’의 실천으로 풀사이드 요가 클래스를 진행한다. ‘갯생살기’는 ‘God + 인생’의 신조어로 하루하루 소박한 목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제주신화월드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 모실 클럽하우스 실의 수영장에서 요가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후 광폭행보

‘뉴삼성’ 가속도... ‘ARM’ 인수전 참여할까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영국 해외 출장서 현지 사업 점검 ARM, 모바일 AP 점유율 90% 육박 실제 추진 땀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



10일(현지 시각) 멕시코 삼성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의 영국 방문으로 ARM 인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이재용의 뉴삼성’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약 한달 동안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기흥 연구개발(R&D) 단지 기공식 참석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현장경영 행보를 한 데 이어, 복권 후 첫 해외 출장길에 올라 네트워크 관리와 현지 직원과의 소통에도 나섰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굵직한 현안들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출장으로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이 M&A 후보 중 하나로 떠올라 관심을 모은다.

●현장 경영·해외사업 점검 등 진행

이 부회장은 사면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복권 후 바로 다음날인 8월 16일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사회공헌활동을 논의했으며, 19일에는 삼성전자 기흥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부문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

는 등 현장 경영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후 삼성엔지니어링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SDS 잠실캠퍼스를 연이어 찾아 직원들과 소통했다.

1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환경경영전략’도 발표했다. 초저전력 반도체와 전력사용 절감 전자제품 개발, 자원순환, 수자원 재활용 등으로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 가입도 공식화 했다.

9월 들어선 해외 활동에도 나섰다. 지난 6일 복권 후 처음 해외로 출국한 이 부회장은 8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13일에는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남미 법인장 회의를 갖는 등 현지 사업도 점검했다.

●ARM 인수 추진 가능성도

이 부회장의 이번 해외 출장으로 대규모 M&A 추진 가능성도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중남미에 이

어 영국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했다고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인수전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국 방문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면 자칫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M&A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도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웨컴 등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연이어 ARM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ARM은 반도체 설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설계의 경우 글로벌 점유율이 90%에 육박한다. 지난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약 125조 원. 인수 여력은 충분한 셈이다.

다만 인수를 실제 추진할 경우 여러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추진하다가 반독점 이슈로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이 부회장이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서울에서 만난 것을 두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 얘기도 나온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하이트진로-휴앤쇼핑 ‘H 트라이앵글’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발굴



하이트진로와 휴앤쇼핑이 10월 21일까지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H 트라이앵글’ 공모전(사진)을 진행한다.

‘우수 아이디어 상품·서비스’와 ‘10억 원 지원 투자’ 부문으로 구성했다. 공모 분야 및 응모 자격의 제한 없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만 있으면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든 업체가 지원 가능하다. 아이디어 제안서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수 아이디어 상품·서비스에 선정된 기업은 상금과 함께 하이트진로의 대표 캐릭터인 두꺼비를 활용한 라이선스 제품화, 휴앤쇼핑 방송 기회 부여, 라이브 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지원투자 부문에 선정된 기업은 총 10억 원의 지원 투자 및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팁스(TIPS) 추천 기회를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남양주프라임정형외과 오을 대표원장 난치성 목디스크 치료 임상 결과 발표



오을(사진) 남양주프라임정형외과 대표원장이 최근 열린 ‘제9회 분당여름통증학회’ 세미나에서 ‘난치성 목디스크 방사통의 경피적 내시경 목디스크 절제술(PECD)’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세미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해

2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PECD는 경추의 후궁인대 뒤로 접근하여 파열된 경추 추간판(목디스크)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골용합술, 금속판 이식 없이 추간판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존하면서 파열된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을 대표원장은 “PECD는 전방, 후방 추간판 절제술에 비해 일상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의 위험도 크지 않아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 경추 후방 수술은 전방 접근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LG생활건강, 물티슈 사업 접는다

일부 제품서 검출돼 판매중지·폐기 자진 회수기간 끝났지만 조치 계속



CMIT와 MIT 성분 검출로 도마 위에 오른 LG생활건강의 어린이용 물티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 55’.

LG생활건강이 연내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로 논란이 된 물티슈 사업을 접는다. 2007년 사업 전개 이후 15년 만이다.

7월 어린이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살균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시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시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극미량(2.4ppm)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물티슈용 부직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생산라인에 남아 있던 잔여 세척제 성분이 부직포 원단에 혼입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MIT와 MIT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살균보존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치약, 샴푸 등에 사용했지만, 현재는 생활 화학제품 내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문제가 된 제품은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핑크프 캡 70매 물티슈)’ 가운데 제조번호가 ‘1LQ’인 제품으로, 식약처 회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총 7920개다. 물티슈 특성상 이미 사용된 경우가 많아 회수량이 161개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뿐 아니라 식약처 회수 명령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 32만 개를 회수했고, 자진 회수 기간이 끝났지만 회수 조치를 이어간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한편 LG생활건강의 물티슈 매출은 연평균 80억 원으로, 지난해 연매출의 약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배민,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로봇배달 시작

우아한형제들은 경기도 수원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로봇배달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누구나 배민 앱을 통해 로봇으로 음식을 배달 받을 수 있다. 가게에서 6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15분 만에 음식을 수령할 수 있다. 엘리웨이에 입점한 14개 맛집 음식을 대상으로 한다. 광교호수공원 곳곳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한 뒤 배민 앱에서 주문하면 정해진 장소에서 음식을 배달 받는다. 고객은 주문 접수, 배달로봇 출발, 가게 도착 후 음식 적재, 배달지 도착 등 상황마다 알림톡으로 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SKT, 기후변화로 인한 통신 인프라 피해 대응 구축

모든 통신장비 리스크 평가 진행

SK텔레콤은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과 함께 미래 기후변화가 통신 인프라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SK텔레콤은 현재 대응체계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이상 기후 같은 미래 극한 기후의 강도와 빈도를 반영한 사전 예측 대응체계에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리스크 평가를 진행했다. 리스크 평가는 전국에 위치한 기지국,

중계기를 포함한 모든 통신 장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불과 산사태, 폭염, 폭설, 폭우와 같은 5가지 이상 기후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2021년부터 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분석했다. 평가 결과 폭설을 제외한 산불, 산사태, 폭염, 폭우 등 4가지의 이상 기후 발생 확률은 205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지도 상에 이상 기후 발생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표



SK텔레콤이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과 함께 기후변화가 통신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SKT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지도’를 확인하는 관계자들. 사진제공 | SK텔레콤

시한 ‘SKT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지도’ 도를 지속적 분석 및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서울관광재단, 뷰티·웰니스 관광상품 19선 발표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씹, 맛, 멋을 즐길 수 있는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상품 19선을 발표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퍼스널 컬러 진단 후 맞춤형 프로필 사진 촬영, K-메이크업 레슨, 템플스테이와 선식체험, 청와대 역사 투어, 북한산 트레킹 등이 있다. 이들 관광상품은 서울시로부터 2년간 유효한 ‘2022-2023 뉴노멀 관광콘텐츠’로 인증받았다. 앞으로 글로벌 OTA 트립어드바이저와 협업해 10개국 관광객들이 한국이나 서울 관광을 검색하면서 상품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6주간 배너 광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